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



민선9기 군정 최우선 가치 '군민'

최 군수, 5대 핵심사업 제시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장수군은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를 군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민선8기 동안 장수군 최초 예산 5천억 원 시대 개막, 종합충원도 1등급 달성, 전국적인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등 장수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해 준 장수군은 민선9기에는 그 위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려 군민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선8기 장수군정은 5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장수군은 △기본소득을 넘어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모델 조성 △기회가 넘쳐나는 미래농업 육성 △모여들고 성장하는 활력도시 실현 △사계절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도시 장수 조성 △군민과 소통하는 신뢰의 장수 구현을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민선8기가 장수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면 민선9기는 그 변화를 군민의 삶 속에서 분명한 성과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다"며 "앞으로 펼쳐질 4년 동안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고 밝혔다.

먼저 민선9기 군정 핵심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넘어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모델'을 내세웠다. 소득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돌봄,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등 군민 삶의 기본 영역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장수형 기본사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 농업 분야에서는 장수한우, 장수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지역 대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지키는 미래농업 기반을 구축한다.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생산비 증가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 스마트농업과 유통·가공 혁신을 추진하고 장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셋째, 정주·생활 기반 확충도 민선9기 핵심 과제다. 장수군은 청년과 귀농귀촌인, 생활인구 등 다양한 인구가 지역에 모이고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인구 활력이 지역경제 성장 기반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관광 분야에서는 장수 누리파크, 장안산 역사숲 문봉샘 국가생태관광지, K-사모니, 산악관광 자원 등을 연계해 '사계절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도시 장수'를 만들어간다. 청정 자연과 산악관광 자원을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하고, 관광객의 방문이 지역상권 소비와 생활인구 확대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군정의 최우선 가치를 군민으로 삼고 '소통'과 '신뢰'를 강조했다. 장수군은 군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군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Q. 먼저 재선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과 함께 군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민선8기에 이어 민선9기 장수군수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위대한 장수군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보내주시는 지지와 성원은 장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며 더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군정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장수의 더 큰 도약을 간절히 염원하는 장수 군민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끼며 그 뜻을 받드는데 제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Q. 민선8기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민선8기 장수군은 여러 분야에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장수군 최초 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열었고, 종합충원도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전국적인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도 장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장수군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공직자들의 헌신,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이제 민선9기는 그 성과 위에서 군민 삶의 변화를 더 분명하게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Q. 민선9기 장수군정의 가장 큰 방향은 무엇입니까?

- 민선9기 장수군의 비전은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입니다. 민선8기 장수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면 민선9기는 그 변화를 군민의 삶 속에서 분명한 성과로 증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장수군은 군민과 약속한 5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4년 동안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군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Q. 민선9기 핵심 메시지로 기본소득을 넘어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모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 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본소득이 군민 삶의 안정적 토대라면, 기본사회는 소득뿐 아니라 돌봄,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등 삶의 기본 영역을 함께 보장하는 더 큰 개념입니다. 군민 누구나 삶의 기본 영역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수를 기본



소득을 넘어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모델'로 만들어가는 데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Q. 장수군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계획입니까?

- 농업은 장수의 뿌리입니다. 농민이 웃어야 장수가 웃습니다. 장수군은 장수한우, 장수사과, 장수토마토, 장수오미자, 장수상추, 장수양파 등 지역 대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회가 넘쳐나는 미래농업을 통해 농가소득을 지켜가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생산비 증가 등 농업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장수 농업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스마트농업, 청년농업인 육성, 지역 대표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농업이 장수의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Q.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은 장수군이 반드시 넘어야 할 현실입니다. 민선9기에는 정주·생활 기반을 확충해 청년, 귀농귀촌인, 생활인구 등 다양한 인구가 모이고 머무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인구 활력이 지역경제 성장 기반으로 이어지는 '모여들고 성장하는 활력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Q. 관광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기대됩니까?

“군민들의 삶 속에서 분명한 성과로 증명

농어촌 기본소득 바탕으로 국가 기본사회 선도모델 견인

스마트농업·청년농업인 육성 대표 농축산물 고부가가치화

정주·생활 기반 확충 모여드는 활력도시 실현

청정 자연의 가능성 관광·지역경제로 연결 사계절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도시 장수 조성

군민 소통하는 신뢰도시 만들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듣고 더 책임있게 군정 운영

- 장수는 천혜의 자연과 청정한 매력을 가진 고장입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관광과 지역경제, 생활인구 확대로 연결해야 합니다.

장수 누리파크, 장안산 역사숲 문봉샘 국가생태관광지, K-사모니, 장수의 산악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사계절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도시 장수'를 만들겠습니다. 머물고, 걷고, 쉬고, 다시 찾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성장시켜 관광객의 방문이 지역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Q. 군민과의 소통행정은 어떻게 강화할 계획입니까?

- 장수군정의 최우선 가치는 군민입니다. 장수군은 군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군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은 군민의 삶과 밀리 있어야 안 됩니다. 군민이 불편을 느끼는 현상으로 찾아가고, 작은 목소리도 가볍게 흘러들지 않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신뢰의 장수'를 만들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듣고, 더 책임 있게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Q. 4년 뒤 군민들에게 어떤 장수군으로 평가 받고 싶습니까?

- 4년 뒤에는 군민 여러분께서 '장수가 달라졌다',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졌다', '내일이 더 기대된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수군은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라는 비전 아래 군민 삶의 기반을 더 든든하게 하고, 농업과 관광, 지역경제와 정주여건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을 만들어겠습니다. 장수군민과 함께 장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장수군민들에게 다짐과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두 번째이자 저를 믿고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장수군민 여러분의 깊은 뜻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제 앞으로 4년, 저는 오로지 장수군민만 바라보고 믿고 맡겨 주신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마음 그대로 항상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고, 더 정직하게 '군민을 섬기는 군수',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장수군민 여러분!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의 비전을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장수군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장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수=교관호 기자